

한농공 정읍지사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수질환경보전회의 개최

박제철 기자

2024.06.20 오후 3:48



한농공 정읍지사 수질환경보전회의(지사 제공)2024.6.20/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이건국)는 20일 정읍지사가 관리하는 석우저수지에서 지자체, 학계, 환경단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1차 수질환경보전회의를 개최했다.

수질환경보전회 위원들은 이날 농업용 저수지 수질환경 관리를 위한 각계 역할 분담과 농업용수 수질오염 저감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저수지 제방 및 인근 주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건국 정읍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및 국지성 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정읍 지역 농업용수 관리 및 수질개선, 환경보전을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 <https://www.news1.kr/local/jeonbuk/5453953>